

무림2005 달성 위해 제지산업 중점 육성

환경사업 진출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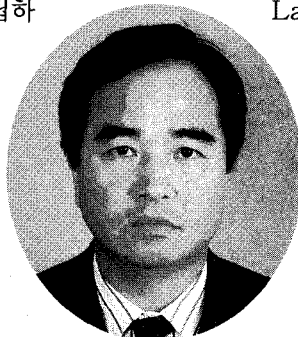
1956년 무림제지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제지업으로 첫발을 디딘 무림그룹은 현재 제지관련 3개업체와 그 외 9개의 계열 및 관계사를 가지고 있다.

무림그룹의 첫 디딤인 무림제지(주)는 40여년 전 한지시대를 양지시대로 넘기는 우리나라 제지산업에 있어 시대의 획을 긋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제지산업의 현대화에 앞장서 왔다.

무림제지는 지난 79년 일산 150톤이라는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신무림제지를 가동하였고 84년에는 백판지를 생산하는 세림제지를 설립하여 지중다각화와 함께 제지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중 총 종업원 수 584명에 연 매출액 2천1백2십억원을 달성하는 신무림제지는 아트지와 백상지를 주 생산품목으로 무림의 제지관련계열사를 이끌어오고 있는 업체이다.

현재 신사동 서울본사 외에 진주공장을 가지고 있는 신무림제지는 국제화 및 자기개발을 강화하고 변화예지 및 조기적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21세기 정보사회형 인재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Dual



▲ 이원수대표이사

Ladder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해외 배낭연수의 실시, 각종 해외연수 및 제지 박람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전 사원에게 고루 부여하고 있으며 발탁승진제도를 도입해 2단계 이상 발탁승진을 가능케 하므로써 능력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리고 승진 1년전에 승진자격요건을 통지함으로서 개인 준비기간을 부여해 개인 및 조직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독서연수제를 시행하고 사내 필독서를 지정, 레포트를 제출하게 해 사내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사원들마다의 개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업의 방침을 기본으로 사원들에게 수직적인 체계만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신무림제지는 열린 경영을 도입, 직원 또는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여론을 회사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고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 무림인이 된 신입사원들의 조기 적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MR. GUARDIANSHIP, 즉 지도사원제도의 시행도 무림의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입사원교육 외에 끊임없는 발전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게도 전락교육, 직무교육, 글로벌교육, 무림문화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모색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무림은 지난 96년 '무림 2005'라는 타이틀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무림 2005'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무림그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 우선 전문화를 통한 세계화 실현을 위해 그룹의 경영자원을 제지사업으로 집중화하고 특별히 사업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제지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되, 제지사업의 수직계

[표 1] 무림그룹 제지관련사 주요 생산품목 및 업무현황

회사명	구분	생산품목
무림제지(주)	특수지 (도피)	라벨지, 코로타이프지, 카드용지, N.C.R지, 감열기록지, 무표용지, 첩피온지, L.WC지, C.C.P
	특수지	컴퓨터용지, OMR지, 박리지, 도화지, 감광지, 강판간지, 벽지원지, 엘범용지, 컵원지
신무림제지(주)	아트지	크리스탈아트지, 아트지, 스노우화이트지, 엠보싱아트지
	백상지	유광지, 반유광지, 무광지, 미세백상지
세림제지	백판지	아이보리C.C.P, 아이보리지, SC마닐라지, TOP마닐라지, 엘범지, 크라프트판지, 백라이나지, KA라이나 (황색), 석고보드

열화 및 수평 분업화를 통한 그룹의 시너지 효과 창출해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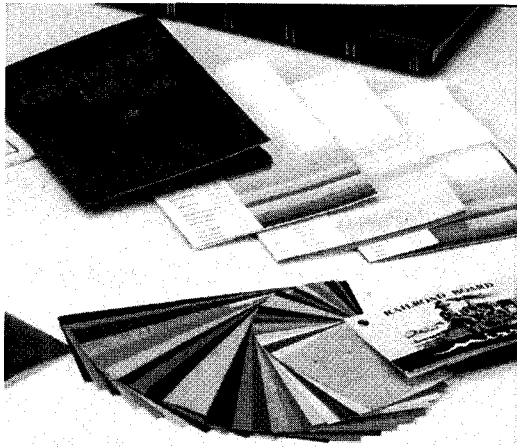
또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시도를 통해 원료에서부터 연구개발, 제조·판매까지 일관화할 수 있는 제지부문의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무림은 월산공단내 무림제지 제2 공장 건설과 신무림제지·세림제지의 공장을 증설하고 적극적인 해외공장 건설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생산능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룹 종합연구소를 설립하여 차세대 종이핵심기술을 개발,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종합제지회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동력을 겸비한 유연한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 제지생산공정



▲ 신무림제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종합제지회사로서의 위상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 지종의 개발과 기술력 확대가 필수적인데 인쇄, 환경, 화학, 기계분야 등의 종합그룹 연구센터를 발족시켜 그룹 기술 저수지의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차세대 종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게 될 종합그룹연구센터의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재 과감한 투자와 연구인력의 정예화, 그리고 기술기획부분의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해외 삼림개발과 펄프공장 추진, 동해펄프의 경영정상화로 주원료인 펄프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고지유통사업, 부원료생산 화학사업을 계열화해 제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방사업을 완성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해외 선진제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신규 지(紙)·펄프공장 투자, M&A를 추진함은 물론, 기술을 선진화할 복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97년 새해를 맞아 사업목표를 새로이 정한 신무림제지는 제지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설투자를 확대해 진주에 3호기를 설치하고 월산공단내 열병합 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 지종의 개발에도 정진할 계획인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산업으로의 제지산업의 위치 구축에 앞장서며 환경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사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인 실행을 해가고 있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지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투자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인데 선진제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해외조림사업 및 JOINT VENTURE MILL을 추진해 원료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무한한 개척 가능성을 가진 중국에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해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세계적인 제지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지만 라미네이팅된 재질의 경우 등이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이 가능하면서도 기존 라미네이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의 개발 등 소비자의 욕구와 시대적인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신무림제지의 거듭남을 기대해 본다. ☞

윤지은 기자